



구원과 회개

인천송도교회 오지웅 형제



구원에 대한 논란

1970~80년대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전혀 안변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논란

1970~80년대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전혀 안 변하는데 사람들”

자네스 호지스, 찰스라이리 (달라스 신학교 교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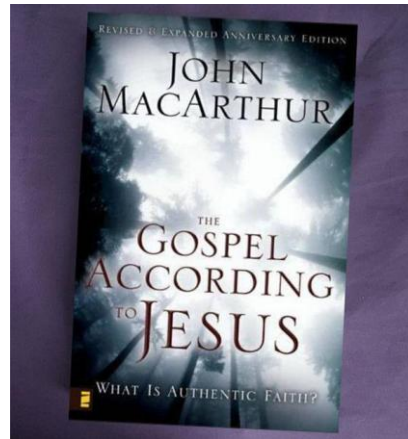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근거 (프리 그레이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

엡2: 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존 맥아더의 반론

맥아더는 당시 복미 복음주의 내에서 확산되던 ‘값싼 은혜(Easy Believism)’에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Savior)로만이 아니라 주(Lord)로 믿는 신앙이 진정한 구원 신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회개와 순종이 구원의 필수 요소를 강조한다.





신학적 논쟁과 영향

출간 후, 찰스 라이리(Charles Ryrie)나 Zane Hodges 등과의 논쟁을 촉발하며 복음주의 내 주요 신학 논쟁으로 부상했다. 존맥아더의 지지자들은 복음의 균형 회복으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행위구원으로 오해받을 위험을 지적했다.



구원에 대한 관점 1

1. 믿음만 있으면 된다.: 구원을 받을 시 회개는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된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한 관점 2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회개가 곧 믿음이라는 의미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11:18)



구원에 대한 관점 3

회개와 믿음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구원의 조건을 믿음만이 아닌 회개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막1:14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 메타노이아 (μετάνοια)

meta = 바꾸다, 넘어가다

nous = 마음, 생각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shuv)**”:하나님께 돌아오다.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유대인의 회개(행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의 회개(행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함.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회개의 대상: 하나님

→너희들이 여태까지 믿어오던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



헬라인(이방인)의 회개(행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헬라인(이방인)의 회개(행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 이방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방풍습, 죄, 헬라철학)

*회개의 대상:하나님



행11:18 고넬료의 회개(생명 얻는 회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행11:18 고넬료의 회개(생명 얻는 회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 생명얻는 회개→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

*회개의 대상: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롬10:1~4)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회개의 대상: 하나님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생각의 방향전환

구체적인 회개: 말씀을 거역한것에 대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 삶,
자기 의에 대한 회개



회개와 믿음

회개	믿음
방향성 (하나님께로의 회개)	확증 (예수 그리스도)
주체: 나	주체: 예수님
대상: 하나님	대상: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바울이 전한 복음(롬20: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Q. 믿음은 단회적인 것인가?

A 구도자)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뒤에 믿음생활도 안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그런데 지금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자꾸 정죄감이 든다.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결실이 있는 믿음(마13:20~22)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믿음의 영원성 (고전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영원성(고후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구원의 취소?

B구도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면 살인을 해도 구원이 취소가 안되나요?



롬6:1~2

- 1.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요일 5:8~10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 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마18:15~17)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회개의 주체의 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
회개는 방향성. 믿음은 확증.
회개와 믿음은 같이 동반되며 둘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 없다.
→ 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

*믿음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한번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치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되어
지는 것이다-성화의 과정.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과 나의 주님되심은 따로 때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나와 동행하시기 위함이다(주님이 되심)



예수와 임마누엘(마1:21~23)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